

# ‘산업용 전기도 폭탄 예고’… 속타는 지역 영세기업

전기 사용량 많은 업체들 ‘시름’  
플라스틱·식품업체도 부담 늘어  
전기요금 인상 ‘대책없다’ 69.9%  
“中企 전용요금제 신설 등 필요”

“1년새 전기요금만 40% 정도 넘게 오른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덩달아 공공요금까지 이렇게 오르니 아주 죽을 맛입니다.”

광주 하남산단에서 직원 50여명 규모의 도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또 오를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고민이 많아졌다. 도금하는 모든 작업에 전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나오

는 유해 가스를 환기하기 위한 설비 역시 계속해서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도금을 위해서는 24시간 용해로를 가동해야 해서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일 수 없는데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 생산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지역 중소기업에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산업 구조상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영세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9일 지역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기존 도금, 주물, 금형 등 열처리 공정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심화되던 전기요금 인상 여파가 일반 부품 제조업체나 플라스틱, 냉·온장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 등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관계자는 “평소 전기요금이 2000만원 내외로 부과됐다면, 지난해 연말부터는 2600만원을 넘기는 달도 있고 평균이 2500만원 내외로 나온다”며 “20~30%는 오른 것으로 체감되는데 올해 또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309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기업

의 응답이 94.9%에 달했다. ‘매우부담’으로 응답한 기업은 50.2%였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응계획으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69.9%로 가장 많았다.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 역시 영세 중소기업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만드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1.5%에 달했으며 ‘인상폭만큼 절감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는 기업 역시 12.9%에 불과했다.

전기요금 절감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과도한 속도)’이 42.4%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함’ 19.7%,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 16.8% 등이 이어졌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를 신설하고 전력 기반기금부담금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찬희 중소기업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현장에서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본격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며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등 중장기적인 체질개선 대책과 분할납부 도입 등 단기 납입부담 완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광주전남중기청,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육성

올해 창업기업 40개사 선정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3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참여기업들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3회 복합위기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들을 발굴해 기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20개씩 60개사를 선정해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40개사를 선정해 ‘소부장 유망 스타트업 100개’ 발굴 목표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

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분야 외에 반도체 분야를 신설하고 6개 분야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들을 선정해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과 융자·보증·수출 마케팅 지원 우대 및 투자유치, 회계 및 지식재산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또 지원 업체의 초기 사업화를 위해 LG이노텍,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대·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기술 174개를 공시하고, 기술개발이 가능한 창업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계해 상시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10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2일 오후 4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지혜 기자

## 지역 유통가 ‘발렌타인데이’ 마케팅 분주

광주신세계, 초콜릿 등 특별전  
이마트·홈플러스 최대 50% 할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이하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지역 유통가에서도 관련 상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9일 이마트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초콜릿 최대 50% 할인 행사와 동시에 구매금액대별 최대 30% 할인 쿠폰 3종을 추가로 지급한다.

실제로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코로나 기간 동안 이마트 발렌타인데이 매출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20%가량 줄었지만, 올해는 대면 모임 등이 정상화된 만큼 초콜릿 구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마트는 지난해 발렌타인데이 대비 이번 행사 물량을 150% 가량 확대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마트 앱을 통해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사전예약 판매도 진행했다.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이마트 앱에서 13일간 진행 예정될 예정이었던 사전예약 행사는 시작 이틀 만에 준비 상품이 모두 완판되며 조기 종료됐으며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광주신세계는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식품매장·행사장에서 ‘발렌타인데이 특집’을 진행하고 초콜릿 상품과 케이크, 와인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1층 식품매장·행사장에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발렌타인데이 특집’을 진행하고 이색적인 초콜릿 상품과 케이크, 와인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인다.

수제 초콜릿 ‘스폰홀릭’과 일본 3대 명과의 하나로 손꼽히는 화이트 초콜릿 쿠키 ‘시로이 코이비토’ 브랜드가 팝업스토어를 진행해 눈길을 끌 예정이며 이외에도 2층 주얼리 매장에서는 골든듀 발렌타인 기획 아이템과 스톤헨지·다이아미 커플링 등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도 오는 15일까지 ‘발렌타인데이 기획전’을 개최하고 인기 초콜릿과 캔디를 총망라한 330여개 품목을 최대 50% 할인가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발렌타인데이 행사 상품(주류 제외) 2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며 홈플러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1+1, 2+1 할인 행사와 함께 발렌타인데이 분위기를 더하는 와인, 위스키 등 주류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한다.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국 고객 대상 매일 2만명에게 최대 5만 마일리지를 랜덤 지급하고, 구매 고객 대상 매일 1만 명에게는 최대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광지혜 기자

## 광주문화신탁, 자산 1조5000억원 달성

손익 사회 환원·장학재단 등 활발

광주문화신탁은 지난 8일 본점에서 신탁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자산 1조5000억원 달성 기념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하 본부장, 고영철 이사장을 포함한 광주문화신탁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사진)

김영하 본부장은 “자산 1조50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 노력해 준 임직원들께 감사 드린다”며 “금융협동조합인 신탁의 원형을 잘 유지하면서 이룬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과 함께 지역주민과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광주문화신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철 이사장은 “자산 1조5000억원 달성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임직원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문화신탁은 1993년 11월 27일 설립돼 2006년부터 양산지점 개점 이후 운암, 매곡, 첨단, 문흥, 동림, 동광주, 각화지점 등 총 8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설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자산규모로는 전국 두 번째로 성장했다.

광주문화신탁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2년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총 152명의 장학생들에게 16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2월 초 기준 포용금융을 위한 다자녀지원안정대출 실적은 47건으로 금액은 84억6000만원에 달한다.

최권범 기자

## 금호타이어, 폭스바겐 전기차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ID.4’에 ‘크루젠 EV HP71’ 장착

금호타이어는 폭스바겐의 순수 전기 SUV 모델 ‘ID.4 (Volkswagen ID.4)’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OE)로 크루젠(CRUGEN) EV HP71(사진)을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폭스바겐 ID.4는 준중형 SUV 시장에서 동급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상품성을 강점으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 10개 주요국에서 유럽 브랜드 전기차 중 판매 1위(2022년 기준)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차량으로, 금호타이어는 ID.4에 크루젠 EV HP71 4개 규격을 공급하게 된다.



고성능 프리미엄 컴포트 SUV 제품인 크루젠 EV HP71은 스테디셀러 제품인 크루젠 HP71을 전기차에 적합하도록 리뉴얼한 제품으로 승차감 및 제동 성능 극대화를 위해 고분산 정밀 실리카를 포함시킨 EV 최적의 컴파운드를 사용했다.

일반 제품 대비 마모성능과 제동력 등

을 대폭 개선해 주행안정성을 높였으며 특히 타이어 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딥플(dimple) 설계로 분산시키는 ‘타이어 소음 저감기술’을 적용, 패턴 설계 해석 시스템을 활용해 개발한 제품이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담당 상무는 “완성차 브랜드들이 완전한 탄소 중립을 지향하면서 전기차 공급이 늘고 있고 금호타이어도 전기차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며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하며 연구개발을 거듭해 선도적인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나은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광지혜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